

성인기 사랑의 개념적, 발달론적 이해에 대한 연구

유가효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인기의 사랑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된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이론, 사랑의 발달적 기원으로서의 애착관계와 사랑, 사랑의 성차와 성격과의 관련성, 성인기 동안의 사랑요소 및 유형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성인기의 사랑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기에 안정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사랑의 세 가지 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사랑유형에 있어서는 우애적 사랑, 열정적 사랑, 이타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애착경험과 사랑유형의 관계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랑에 있어 성차도 나타났는데 남성은 과업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으로 보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오히려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랑의 구성요소에 따른 특성과 유형은 성격 및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그 중 사랑유형과의 관계는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는 관계가 지속될수록 친밀감과 헌신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부부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주제어: 사랑, 애착, 성차, 성격, 자아존중감, 친밀감, 헌신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ykhljdj@kmu.ac.kr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2010) pp.191-216

© 2010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심리학이 대두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장점과 재능을 함양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심리학의 중요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으로서 매우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지만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석만, 2008). 그것은 첫째,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상태를 연구하는데 이러한 긍정적 상태로는 행복감, 안락감, 사랑, 친밀감 같은 긍정적 정서가 있다. 둘째, 긍정심리학은 개인이 지니는 긍정적 특질, 즉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강점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긍정심리학은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관에 대해 관심을 지닌다. 즉,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기관, 지역사회가 어떤 조건과 기능을 갖추어야 구성원이 행복한 가운데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그 실현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심리학의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인간의 긍정적 심리상태의 중요한 측면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적으로 정의된 사랑이 경험적 연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이해함으로써 성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Erickson(1950)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친밀감 형성이라고 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친밀감(intimacy)이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정서적 관여, 근접감, 유대감, 지지 등을 갖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과 더불어 자신의 깊은 소망과 두려움을 나누고 또한 상대방의 친밀의 욕

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친밀감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과의 굳건한 연합(affiliation)과 동반자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한 결심으로 인해 중요한 희생과 절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지켜야 할 윤리적 강점들을 발달시키며 이것이 파트너와의 결속(solidarity)을 이끌어낸다. 한편 친밀감의 반대는 거리감으로서 이것은 고립을 낳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

Erickson은 젊은 성인들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거리두기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회적 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에릭슨이 말하는 진정한 친밀감 형성은 정체감이 어느 정도 확고해진 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에릭슨의 친밀감은 이성간의 사랑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었던 Freud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친밀감의 형성은 이성을 포함한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공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즉 친밀감은 우정, 사랑, 헌신 등의 형태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자 배우자선택의 필수적인 선행과정이 된다(차정화 · 전영주, 2002).

대부분 사람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삶이란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간다고 볼 때 친밀감 형성의 관건은 무엇보다 이성과의 사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인기에 들어서는 미혼남녀들은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 가운데 연인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꼽는다(이정은 · 최연실, 2002). 또한 친밀감은 사랑의 하위요소로 개념화(Sternberg, 1986)되기도 하고 하위요소 중 가장 핵심 영역이자 책임감과 열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는 친밀감을 사랑에 포함시켜 성인기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며 국내외의 연구들을 통해

성인기의 사랑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랑의 정의와 유형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인구에 회자되거나 수많은 문학작품,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면서 감동적으로 찬양되고 있는 말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성격의 건전성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다. Freud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삶의 두 가지 중심축은 사랑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Parsons와 같은 사회학자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분화된 성역할기능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경험의 하나라는 것에서 사랑의 존재가 입증된다. 둘째는 사랑의 능력은 학습된다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릴 때 길러지며 사랑이나 애정의 표현방법도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사랑이 여러 단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지 막연히 좋아하는 호의와 정열적 애정 사이에 걸쳐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사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이타적 사랑, 동료적 사랑, 낭만적 사랑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다섯째, 사랑은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순간적인 열정만도 아니고 일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사랑이 학문적 연구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연구가 지난 30년 동안 서구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사랑에 대한 초기 이론들이 사랑을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반면 최근의 이론들은 사랑을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Lee, 1973; Sternberg, 1986). 사랑에 대한 오늘날의 정의는 예전의 그것과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본다. 첫째, 사랑을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는 사랑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랑과 결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유영주 외, 2003).

1970년대에 처음 사랑의 형태를 측정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Lee (1973)로서 사랑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을 통해 사랑의 유형에는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의 차이가 있으며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정은·최연실, 2002에서 재인용). Lee는 성경과 그리스, 로마, 중세 및 현대에 걸쳐 수많은 픽션과 논픽션 작품들로부터 4000여 개 이상의 사랑에 관한 문구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에 관한 30문항의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랑의 일차적 형태를 끌어내고 이를 열정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우애적 사랑(storge)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기초유형에서 각각 두 종류씩을 결합시켜 사랑의 이차적 형태인 실용적 사랑(pragma, 유희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결합), 소유적 사랑(mania,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결합), 이타적 사랑(agape,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의 결합) 등 총 6가지 사랑의 유형을 추출하였다(홍성례, 2007; 170에서 재인용). 그에 따르면 단지 하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이한 유형의 사랑이 존재하며 사랑의 각 유형은 모두 타당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열정적 사랑은 성적이고 감각적이며 강한 정서적 감정이 특징인 사랑의 측면이며 시각적, 신체적인 매력에 끌리고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 함께 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유형이다. 유희적 사랑은 사랑을 남녀 간의 게임으로 생각하며 깊은 헌신이나 관여 없이 재미나 기쁨을 느끼기 위해 여러 명의 연인을 동시에 사귀기도 하고 상대방이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에게 짐착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우애적 사랑은 사랑을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 보고 서서히 발전해가는 정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것이라 보는 사랑의 유형이다. 소유적 사랑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상대방에 의존적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랑이다.

실용적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찾는다. 이러한 상대를 찾기 위해 유희적 사랑을 활용하며 열정적 연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선택에 대해 친구나 부모와 상의하기도 하는 사랑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랑인 아가페는 헌신적, 타인중심적, 자기상실적 사랑으로 사랑을 선물, 혹은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사랑방식이다. Lee는 이러한 의무적이며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유형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라고 보았다(이정은·최연실, 2002).

한편 Sternberg(1977)는 사랑의 유형을 병렬식으로 분류하려는 기존의 연구들(Lee, 1973, 1977)과는 달리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랑의 개념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의 사랑의 삼각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열정, 친밀감, 책임

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구성요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사랑의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이론에서 열정(passion)은 성적 기대를 포함하는 강한 열망이며 욕구(desire)의 차원이다. 친밀감(intimacy)은 깊이 있는 사적이고 비밀스런 감정과 생활을 상대방과 나누는 능력(ability)의 차원이고 책임감(commitment)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머무르려는 약속이자 강력하게 지켜지는 서약으로서 신념(conviction)의 차원이다.

Sternberg(1986)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 인간관계에서 7가지 형태의 사랑을 만든다고 말한다. 첫째는 좋아함(liking)으로서 열정이나 책임감은 없이 단지 친밀감만 있는 형태이다. 둘째는 심취(infatuation)로서 열정만 있는 형태로 친밀감이나 책임감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셋째는 공허한 사랑(empty love)으로서 책임감만 있으며 친밀감이나 열정이 부재한 것이다. 넷째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으로 열정과 친밀감이 있고 책임감은 없는 사랑이다. 다섯째는 실체가 없는 사랑(fatuous love)이며 열정과 책임감이 있으나 친밀감은 없는 사랑이다. 여섯째는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으로 친밀감과 책임감은 있으나 열정은 결여되어 있는 사랑의 형태이다. 일곱째는 완전한 사랑(consummate love)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사랑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두 이론가들이 분류한 사랑 유형 및 사랑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이후의 사랑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애착과 사랑

사랑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랑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애착과 사랑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유아기의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의 사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인기 애착유형과 사랑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발달적 관점에서 성인기 사랑의 근원을 찾으려는 학자들은 어린아이가 생후초기에 주양육자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기제를 통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유아일 때 부모의 양육에 대한 내적 표상이 성인기에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Hazan & Shaver, 1987). 아동기에 부모와의 애착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애착성향이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속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강진경·정태연, 2001).

이러한 아동기 애착과 Sternberg의 이론에 따른 사랑유형의 관계를 본 국내 연구(강진경·최혜경, 1996)에서는 아동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과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 애착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경우, 성숙한 사랑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애착과 자율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한 유형이나 또는 애착이 자율성보다 더 발달한 유형이 사랑의 삼요소를 모두 높게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자율성이 높고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미발달된 사랑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발달이 성인기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반대로 자율성 발달은 친밀감에 대한 회피적 반응과 관련된다는 Rubin(198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강진경·최혜경, 1996).

한편 성인애착유형에 대해서 Hazan과 Shaver(1987)는 연인들의 상호 작용경험을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성인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애착행동의 특성을 Ainsworth의 아동애착유형과 유사하게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애착유형과 연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정 애착유형인 회피형과 양가형 집단은 안정 애착유형 집단에 비해 애인관계에서의 만족감도 낮고 연애기간도 짧았다고 보고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의존, 불안, 친밀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연속척도인 성인애착척도(AAS)를 만든 Collins와 Read(1990)는 친밀과 의존의 점수는 높으나 불안점수는 낮은 유형은 안정형으로, 불안점수는 높고 의존과 친밀의 점수는 중간 정도인 것을 불안형, 친밀, 의존, 불안이 모두 낮은 것을 회피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Ba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애착유형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관계안정형(긍정적 자신과 긍정적 타인), 불안의존형(부정적 자신과 긍정적 타인: 몰두형), 독립자립형(긍정적 자신과 부정적 타인: 해체형), 불안회피형(부정적 자신과 부정적 타인: 공포형)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한 애착유형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상 세 범주의 성인애착척도와 네 범주의 성인애착척도 모두를 같이 사용한 노경란 외 2인(2007)의 연구에서는 세 범주보다는 네 범주 애착유형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보다 더 민감하게 설명한다고 보고 애착유형모델로 네 범주의 성인애착유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성인은 친밀관계를 측정하는 애착유형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즉 관계안정형에 속한 성인들은 불안회피형, 불안의존형, 독립자립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관계안정형은 공감, 배려를 잘하고 주도적이

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관계에서 회피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성인기 애착특성과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척도(STLS: Sternberg's Triangular Love Scale)와의 관계를 111쌍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Levy & Davis, 1988)에서 STLS의 세 요인(친밀감, 열정, 책임감) 모두 안정적 애착점수와 .18에서 .20까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이 세 요인들은 불안/양가적 애착점수와 .21에서 .24까지 부적 상관이 있었고 회피적 애착점수와도 .24에서 .32까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성인기에 안정애착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점수도 높고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이나 회피적 애착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랑의 세 가지 요소의 점수가 낮은 양상을 보이나 특히 회피적 애착의 경우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어 애착과 사랑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270쌍의 대학생 커플을 조사한 국내 연구(정태연 외, 2000)에서도 친밀감, 열정, 책임감을 높다고 지각할수록 애착의 회피와 불안수준이 낮은 것(.70과 .30의 중다상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LS의 하위척도들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은 회피보다 더욱 더 자신을 판단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인 반면, 회피는 불안보다 더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일 수 있다. 이 때문에 STLS가 불안보다는 회피와 더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Lee의 사랑유형과 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Shaver 등(1984)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성인기에 우애적 사랑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열정적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랑을 포기하고 자란 아동은 상대적으로 성인기의 사랑에 무반응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도 안정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닌 사

람들은 신뢰나 우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기초한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불안정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변화가 심하고 파트너에게 강한 질투와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사랑을 한다고 하였다. Feeney와 Noller(1990)도 회피애착의 사람은 열정적 사랑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유희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의 사람은 소유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우애적 사랑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대학생의 경우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고 이타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양가적 애착 대학생의 경우 소유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이타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홍성례, 2007에서 재인용).

국내연구로서 장휘숙(2002)은 애착이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홍성례(2007)의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이 열정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고 유희적 사랑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불안애착 수준은 유희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특히 실용적 사랑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Lee의 사랑유형과 애착과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4. 사랑에서의 성차

사랑의 지각이나 표현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남성은 보다 과업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이어서 여성이 이성과의 사랑 및 친

밀한 관계에 보다 많은 심리적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랑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와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거나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Saxton(1983)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보다 더 오랫동안 관계에 헌신한다고 보고했고, Senchak와 Leonard(1992)는 아내가 남편보다 친밀감이 높고 정서적 표현을 잘한다고 하였다(강진경·최혜경,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성교제커플의 친밀감에 대한 국내연구(차정화·전영주, 2002)에서는 남성의 친밀감이 여성의 친밀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고, 주당 만남횟수가 많은 집단이, 그리고 군복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Lee의 6가지 사랑유형분류에 따른 사랑태도척도(LAS)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유희적 사랑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실용적 사랑, 우애적 사랑, 소유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타적 사랑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홍성례, 2007에서 재인용).

국내연구(조은혜, 1996; 홍대식, 1996)에서는 남성들에게서 이타애와 열정애가 더 높은 반면 우정애, 실용애는 여성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강진경·정태연, 2001에서 재인용). 대학생의 사랑유형을 살펴 본 연구(강영자 외, 2000)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타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열정애)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진경·정태연(2001)도 남성들의 열정애,

유희에 및 이타에 수준이 여성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실용에 수준은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휘숙의 연구(2002)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희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타적 사랑에서는 남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홍성례(2007)의 연구에서도 열정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실용적 사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소유적 사랑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에 쉽게 빠지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사랑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의 조건 및 결혼이라는 전제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강진경·정태연, 2001).

대학생커플에 대한 다른 연구(이지연·정태연, 2007)에서도 여성은 상대남자의 적합성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검증해보는 반면, 남성은 상대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홍성례(2007)도 여학생들이 이성과의 사랑에 있어 논리적이고 덜 낭만적이며 좀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실용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상대의 외모와 관련된 열정적인 사랑을 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이타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바 이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성인초기에 속하는 미혼 대학생들의 세대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사랑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성역할 관념과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5. 성격과 사랑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반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일관된 사랑의 유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 상황적, 관계특징적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랑의 유형이 성격적인 것인지, 태도의 문제인지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Hendrick & Hendrick, 1986).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되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특히 인성특성이 친밀한 애정관계의 발달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성격유형은 반응경향성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연인, 배우자,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양식에 작용한다. 따라서 성격과 사랑의 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 수 있으면 사랑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정은 · 최연실, 2002에서 재인용).

성격과 사랑유형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소수이나 그 결과는 성격에 따라 사랑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은혜(1996)는 여섯 가지 사랑유형과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순응성, 통제성 등 다섯 성격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열정적 사랑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소유적 사랑은 개방성 및 신경증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유희적 사랑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 호감성 및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이정은과 최연실(2002)의 연구에서는 MBTI검사 척도와 LAS의 사랑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외향-내향, 감각-직관 경향에 따라서는 사랑유형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고-감정 경향에 따라서는 사랑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고형에서는 우애적 사랑>열정적 사랑>유희적 사랑의 순으로 나타났고 감정형에서는 열정적 사랑>우애적

사랑)유희적 사랑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단-인식 경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판단형에서는 우애적 사랑>열정적 사랑>유희적 사랑 순이었고 인식형에서는 열정적 사랑>우애적 사랑>유희적 사랑의 순으로 나타나 사고-감정 경향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SJ, NT, SP, NF의 기질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보면 SJ유형에서는 우애적 사랑>열정적 사랑>유희적 사랑의 순이었고 NT유형에서는 우애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유희적 사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SP 유형과 NF 유형에서는 열정적 사랑>우애적 사랑>유희적 사랑의 순으로 나타났다.

SJ유형은 현실적인 의사결정형으로 조직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과거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호한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NT유형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능력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 완벽지향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SJ와 NT 유형은 친구로서의 사랑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이성간의 사랑과 크게 관련이 있으며 남녀 간의 성격적 차이가 낭만적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이지연·정태연, 2007).

한편 자아존중감과 사랑유형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Hendrick과 Hendrick의 연구(1986)와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열정적 사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 이타적 사랑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의 연구(2002)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남녀 모두의 열정적 사랑과 정적 상관관계,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홍성례의 연구(2007)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열정적 사랑 및 실용적 사랑과 정적 상관관계, 소유적 사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열정적 사랑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소유적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6. 성인기 동안의 사랑의 발달적 변화

다른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사랑이 연령이나 교제기간, 결혼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데 사랑을 열정, 친밀감, 책임감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정의한 Sternberg(1986)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요소들의 변화를 밝혔다. 열정은 초기에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로는 습관화로 인해 초기수준 이하로 감소한 후 점차 회복되었다. 친밀감은 처음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그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마지막에는 감소했다. 책임감은 초기에는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가 관계가 장기화할수록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에는 다소 감소하는 S곡선을 나타냈다.

Acker와 Davis(1992)가 18세-64세 204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열정은 여성에 한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친밀감은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컸으며 미혼자들은 교제기간이 길수록 친밀감수준이 감소했다. 책임감은 연령과 교제기간이 길수록 컸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컸다. Hazan과 Shaver(1994)의 연구에서도 남녀가 만난 지 2년을 전후하여 대뇌에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이지연·정태연, 2007, 재인용)

한편 Sternberg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 가운데 대학생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연·정태연, 2007)에서는 사랑의 삼요소와 관계만족도가 교제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권

석만(1997)은 만남의 횟수와 교제기간에 비례하여 이성교제 커플의 친밀감이 증가되나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친밀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서로 친밀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발전된다고 하였다(차정화·전영주, 2002에서 재인용).

기혼자에 대한 연구(최혜경 외, 1999)에서는 사랑의 삼요소가 요인분석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세 구성요소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책임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열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낭만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는 서구인들의 사랑의 개념과 달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부부는 결혼을 통한 제도적 관계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고 낭만적 관계의 의미는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한편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들은 양적으로 변화하였다. 즉, 결혼 5년까지는 친밀감이 책임감보다 컸으나 그 이후로는 반대가 되었다. 그리고 친밀감과 열정은 변화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결혼 후 5년까지는 비교적 점수가 높다가 5년 이후에서 30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결혼 후 5년까지의 점수보다 다소 더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책임감은 결혼 후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요인 모두 결혼지속 년수 30년 이상에 속하는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들의 또 다른 연구(강진경·최혜경, 1996)에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열정이 감소하였다. 뒤의 연구(강진경 외, 2001)에서도 친밀감이 부부간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부부의 사랑을 분석할 때 정(情)의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처럼 Lee(1988)도 사랑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

량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생각도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단 한가지의 사랑유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한 사랑의 유형도 개인사나 관계의 역사에 있어 동일하게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Lee의 사랑유형분류를 적용한 연구(Hendrick & Hendrick, 1986)를 보면 사랑경험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유희적 사랑을 하고 현재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 사랑이나 우애적 사랑 혹은 소유적 사랑을 하며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례,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정은·최연실, 2002)에서 요인분석 결과 Lee의 1차 유형인 세 가지 사랑의 유형, 즉 열정적 사랑(eros), 우애적 사랑(storge), 유희적 사랑(ludus)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순서는 열정적 사랑(46.6%), 우애적 사랑(40.3%), 유희적 사랑(13.1%)의 순이었다. 또한 남녀대학생의 사랑유형을 싱글과 커플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강진경·정태연, 2001)에서는 싱글에 비해 커플의 열정애와 이타애 수준이 높은 반면 유희애 차원은 싱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장휘숙의 연구(2002)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열정적 사랑이나,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을, 그리고 이성교제 중일 경우에는 실용적 사랑이나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는 남녀 모두 누군가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열정적 사랑이나 소유적 사랑, 또는 이타적 사랑을 꿈꾸지만 실제 사랑을 할 때는 실용적 사랑이나 유희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 홍성례의 연구

(2007)에서는 이성교제 중인 남녀 대학생의 열정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의 점수가 높았고 유희적 사랑, 우애적 사랑, 실용적 사랑에서는 이성교제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 Hendrick과 Hendrick의 연구(1986)나 강진경과 정태연의 연구(200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커플이 그 관계에 열정을 갖고 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며 이성관계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사랑 유형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강영자 외, 2000)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논리적 사랑(pragma)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 및 사랑에 대해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Lee의 사랑유형분류 척도는 기본적으로 미혼자들의 사랑유형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결혼한 부부들의 사랑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이상에서 성인기의 사랑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된 개념 및 유형분류의 이론, 사랑의 발달적 기원으로서의 애착관계와 사랑, 사랑의 성차와 성격과의 관련성, 성인기 동안의 사랑요소 및 유형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성인기의 사랑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간이 성인이 되어 경험하는 사랑의 특성과 유형은 아동기 애착경험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안정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사랑의 삼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사랑유형에

있어서는 우애적 사랑, 열정적 사랑, 이타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나 애착경험과 사랑유형의 관계는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랑에 있어 성차도 나타났는데 남성은 과업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으로 보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오히려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랑의 구성요소에 따른 특성과 유형은 성격 및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그 중 사랑유형과의 관계는 역시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는 관계가 지속될수록 친밀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부부관계에는 책임감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랑은 인간관계의 축복인 동시에 성격의 건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인간행복의 핵심적 조건이다. 최근에 들어 인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랑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능력도 학습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발달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근래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나 다른 연구영역에 비하면 축적된 바가 많지 않다.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가령 생후 초기에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안정된 성인애착유형으로 변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자기성장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대학에

서의 교양과목으로 〈사랑학〉 또는 〈결혼과 가족〉과목의 강의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젊은이들의 성인생활 준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인으로서 안정된 삶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고접수: 2010. 10. 25

원고수정: 2010. 11. 22

게재확정: 2010. 12. 10

참고문헌

- 강진경(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신수진·최혜경(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부부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47-59쪽.
- 강진경·정태연(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6권 1호, 1-20쪽.
- 강진경·최혜경·신수진(2001),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한국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51-65쪽.
- 권석만(2008), “왜 긍정의 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긍정적 성품의 발달과 함양”, 2008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움자료집 발표문 (2008. 12. 5)

-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2호, 59-74쪽.
- 김양희·박정윤·노유진(2006), “성인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2호, 31-42쪽.
- 김향숙(2000),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경란·방희정·조혜자(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4호, 471-490쪽.
- 박광배(1999), “사랑과 일에 대한 일-가정의 상충 효과: 남성들의 경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7권 1호, 212-225쪽.
- 박현숙 외(2000),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제9권 1호, 85-95쪽.
- 유영주 외(2003), 『현대결혼과 가족-건강가족적 접근』, 서울: 신광출판사.
- 윤미혜·신희천(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17-32쪽.
- 이숙·우희정·노명희·최정미(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8호, 43-54쪽.
- 이영주·장휘숙(2007), “애착과 의사소통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0권 4호, 17-32쪽.

- 이정은 · 최연실(2002),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분석 -Jung의 심리유형론과 Lee의 사랑유형론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3호, 137-153쪽.
- 이지연 · 정태연(2007), “대학생 데이트 커플의 애정표현행동”,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3호, 315-330쪽.
- 이희숙 · 박경(2008), “성인에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3호, 671-689쪽.
- 장휘숙(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5권 4호, 93-111쪽.
- 정윤경 · 김재엽(2005),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미혼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협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12권, 71-104쪽.
- 정태연 · 강진경 · 최상진(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5권 2호, 85-103쪽.
- 정화숙(2008), “중년기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감 및 스트레스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008년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 전영주(2002), “이성교제커플의 원가족건강성과 친밀감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1호, 39-57쪽.
- 최지영 · 최연실(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0권 2호, 227-244쪽.

- 최혜경·강진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161-174쪽.
- 최혜경·서선영(2004), “한국기혼남녀의 부부간 사랑과 성생활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3호, 181-200쪽.
- 홍대식(1996), “한국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근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0권 2호, 81-110쪽.
- 홍대식(1998),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2권 2호, 199-226쪽.
- 홍성례(2007),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1호, 169-182쪽.
- Acker, M., & Davis, H.(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pp.21-5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226-244.
-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pp.281-291.
- Hazan, C. & Shaver, P. R.(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pp.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pp.392-402.

- Lee, J. A.(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
- Sternberg, R. J.(1986),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pp.119-135.

〈Abstract〉

The Study on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Love in Adulthood

Ka-Hyo Yoo

This study reviews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love in adulthoo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transition of the pattern and component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between love, personality traits and love, sex differences in love. As a result, this review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 of love in adulthood has close relations with the attachment experiences in childhood. Sex differences in love is appeared, but inconsistent with sex-role stereotypes. Also, components of love are related to one's personality and self-esteem, but the relations of patterns of love with personality and self-esteem show inconsistent results. The change of love components during adulthood shows that intimacy and commitment rather than passion are important factors to maintain the marital relationships. Especially, commitment is a remarkable factor increased by marital years in Korean couples. This result has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Korean couples' marital relationships.

KEY WORDS: love, attachment, sex differences in love, personality, self-esteem, intimacy, commitment, passion.